

“담백하게 슬며시 사라지면 되는 것”

가수 양희은 데뷔 50주년 에세이집 ‘그러라 그래’ 발간 힘닿는 데까지 후배들과 작업하며 가수 인생 마무리 준비

1971년 발표한 ‘아침이슬’은 그의 이름을 한 시대의 목소리로 각인했다. 그러나 이후의 반세기를 지탱해온 것은 그가 하루하루 정성껏 살아낸 세월이었다.

올해로 가수 데뷔 51년 차, 그리고 MBC 라디오 ‘여성시대’ DJ로 속 깊은 사연들을 실어 나른 지 만 22년. 한

국 나이로 일흔을 맞은 가수 양희은은 그 세월을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그저 담담히 들려준다. 최근 펴낸 에세이집 ‘그러라 그래’ (김영사)에서다.

상암동에서 최근 만난 양희은은 “노래도, 수필도 이야기다. 선술에 있어 내는 이야기가 노래가 되고, 원고지에 쓰는 이야기가 책”이라며 “꾸밈없이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2년 진행 ‘여성시대’ 매달 기고...책으로 엮어

“그러라 그래”는 MBC ‘여성시대’에서 발간하는 ‘월간 여성시대’에 매달 실은 글들과 새로 쓴 글 등을 엮은 책이다. ‘여성시대’ 진행과 함께 기고도 시작됐으니 글이 쌓인 시간만 22년이다.

그는 지금도 노란색 메모 패드에 검은색 볼펜으로 글을 쓴다. “월고 쓸 때가 되면 ‘아이고 한 달이 갔구나’ 해요. 근데 왜 꼭 마감날 새벽에 글이 써지는지... (웃음)”

책 제목 ‘그러라 그래’는 양희은이 평소에도 잘 쓰는 말이다. 방송인 송은이는 한 방송에서 양희은의 이 말을 듣고 “머리를 부딪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희은은 “상황 윤리 같은 거랄까, ‘그 입장에 처해 보면 나라고 예외 되겠어?’ 라고 해보는 것”이라며 “제목만 듣고 힐링이 되는 기분이라는 소감이 ‘여성시대’ 앞으로든 온다”고 전했다.

책에는 장 박사 밥상 차리는 생활인의 일상부터 무대와 방송에서의 에피소드, 노래에 대한 철학 등 ‘사람 양희은’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겼다.

>“나이 들에 대해 생각...담백하게 사라지고 싶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갈렷던 무대

로 2016년 11월 촛불집회 인파 앞에서 노래한 순간을 꼽았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에서 처음이었어요. 공연장이 아닌데 울림은 참 좋았죠. 그 별의별 얼굴과 사연을 갖고 앉아있는 사람들 위의 공기, 허공에 가득 찬 어떤 기운이 좋았어요. 귀한 무대였죠.”

비슷한 이유로 비대면 콘서트는 녹록지 않은 경험이었다. 그는 “공연이라는 건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화학적인 공기와 내가 접촉하는 것”이라며 “그 기운이 없으니 노래가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지금 마음속에 고인 이야기를 묻자 “나이 들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노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65세 때부터 생각했다는 그는 “노래를 한 듯이 한 세월보다는 라디오를 한 세월이 훨씬 기니, 후배들과 힘닿는 데까지 좋은 작업을 하며 끝내고 싶다”며 “뜻밖의 만남” 프로젝트가 “마무리 준비”라고 설명했다.

그의 마무리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하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그냥 담백하게”라며 “그렇게 거대하게 방점을 찍고 싶지는 않다. 품을 팔려고 노래를 시작했듯 그만둘 때도 슬며시 사라지면 되는 것”이라며 유쾌하게 웃었다.



에세이 ‘그러라 그래’를 펴낸 가수 양희은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시작되는 뮤지컬 공연 '1976 할란카운티'의 포스터. 연합뉴스

광산 노동자 합성의 ‘1976 할란카운티’

가수 이흥기·오종혁 등 출연

1970년대 미국 캔터키 지역 광산 노동자들의 합성을 담은 창작 뮤지컬 ‘1976 할란카운티’가 다음 달 관객들을 찾는다.

‘1976 할란카운티’ 제작사 이터널 저니는 최근 전역한 FT 아일랜드의 이흥기 등의 캐스팅을 확정하고, 다음 달 28일부터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을 올린다고 19일 밝혔다.

뮤지컬은 광산마을 할란카운티에서 광산회사 회포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그린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할란카운티 USA’를 모티브

로 만들어졌다.

이야기는 미국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100여 년이 지난 1976년을 배경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주인공 다니엘이 흑인 라일리의 자유를 위해 함께 뉴욕 북부로 떠나는 여정을 그린다.

젊은 창작진들이 다년간 의기투합해 만든 작품으로 부산, 흥대아트센터 공연을 통한 개발단계로 거쳐 이번엔 본격적인 공연을 올린다.

주인공 다니엘 역은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렌트’를 통해 다양한 매력력을 보여주고 있는 오종혁과 ‘귀환’, ‘그날들’ 등을 통해 뮤지컬 배우로 자리매김한 이흥기, ‘삼촌사’, ‘신데렐라’ 등에 출연한 B1A4(비원 에이피) 산들이 맡았다. 연합뉴스

공유·박보검 ‘서복’ 주말 정상

복제인간 - 요원 동행 그러 15일 개봉 후 누적 21만여명

19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서복’은 지난 주말 사흘(16~18일) 동안 16만 3000여명(매출액 점유율 41.4%)의 관객을 모았다. 지난 15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은 21만여명이다.

‘건축학개론’의 이웅주 감독이 9년 만에 선보인 영화 ‘서복’은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 서복(박보검)과 서복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임무를 맡은 전직 정보국 요원 기현(공유)의 동행을 그린다.

스타 배우들을 기용하고 복제 인간을 소재로 해 주목받았으나, 영화는 본격 SF라기 보다는 죽지 않는

존재인 서복과 시한부 선고를 받은 기현을 통해 삶과 죽음, 인간의 근원적 공포를 성찰한다.

일본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비색의 탄환’과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열차편’(이하 ‘귀멸의 칼날’)이 각각 7만8000여명(19.5%), 3만3000여명(8.7%)의 관객으로 2위와 3위에 올랐다.

장기 흥행 중인 ‘귀멸의 칼날’은 1월 27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 170만 명을 넘어섰다.

새로 개봉한 안희연(가수 하니)이 출연한 독립영화 ‘어른들은 몰라요’와 아카데미 작품상 유력 후보작 ‘노매드랜드’가 7위와 9위다.

지난주 28만8000여명까지 떨어졌던 주말 전체 관객 수는 39만9000여 명으로 회복했다. 연합뉴스



영화 ‘서복’에 출연한 배우 공유·박보검. 연합뉴스

윤여정 수상 여부 이목 쏠린 아카데미

26일 TV조선 시상식 생중계

특히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배우 윤여정은 최근 영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과 미국 배우조합상 영화 부문 여우조연상 등 다수의 시상식에서 좋은 결과를 내며 기대를 모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상식에서 4관왕을 휩쓴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시상자로, ‘미나리’의 한예리도 작품상 후보작 출연자 자격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르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배우 윤여정은 최근 영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과 미국 배우조합상 영화 부문 여우조연상 등 다수의 시상식에서 좋은 결과를 내며 기대를 모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상식에서 4관왕을 휩쓴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시상자로, ‘미나리’의 한예리도 작품상 후보작 출연자 자격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30 외일드 맥 플러스 11:50 불만해도 괜찮아 11:55 한국의 인류유산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KBS 아침 뉴스타임 8: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3부 10:00 속이든 꿩(재) 11:00 달이 뜨는 강(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8:50 밥이 되어라(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불행한 신선놀음 스페셜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아로파티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45 숲속 배달부 빌빙 8:00 덩동덩 유치원 8:30 홀딩 슈퍼피스 9:40 우리집 유치원 12:00 EBS 글로벌 뉴스 13:00 일단 해봐요 14:10 EBS 다크프라임 15:15 클래스 e 16:15 개구쟁이 조이 16:30 덩동덩 유치원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크 19:35 자이언트 펭TV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13: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4:00 중계방송 제41회 장애인들의 날 기념식 14:40 2021 홀트 전국 휠체어농구대회 결승전 16:00 사사건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0 생생정보 스페셜 12:50 리얼속의 김이삼씨 3(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리턴의 신기한 여행(재) 15:30 TV 유치원 16:00 트래킹도 세상을 걷다 스페셜 16:50 TV는 사랑을 싣고(재)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시크릿 주유 벌의어신 12:50 보보보 친구친구 13: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13:50 2시 뉴스 외선 14:3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16:00 기분 좋은 날(재) 17:00 5 MBC 뉴스 17:15 장애인들의 날 특집 다크 순례	12:00 SBS 12뉴스 12:25 JIBS 뉴스 12:50 TV 동물농장(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내모세요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행복설계 알짜배기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다희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항구에 김석훈입니다 9:20 CBS 뉴스 12:05 천왕이 있는 숲길 13:30 생방송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김동대의 뉴스임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원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보물섬 20:30 속이든 꿩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역사저널 그날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리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미스 몬테크리스토 20:30 노래가 좋아 21:30 달이 뜨는 강 22:10 달이 뜨는 강 22:40 옥탑방의 문제아들 1부 23:35 옥탑방의 문제아들 2부	18:10 테마여행 길 19:10 밥이 되어라 19:50 MBC 뉴스데스크 1부 20:45 MBC 뉴스데스크 2부 21:20 아무튼 출근 1부 22:05 아무튼 출근 2부 22:40 D수첩 23:35 바버제 홀츠 스페셜	18:50 생방송 투데이 1부 19:20 생방송 투데이 2부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부 21:4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부 22:15 불타는 청춘 1부 22:55 불타는 청춘 2부 23:25 불타는 청춘 3부	7:00 KCTV 뉴스 8:00 문화매 9:00 KCTV 뉴스 9:30 열린TV광장 12:00 김다희의 아침뉴스 12:30 방송콘텐츠경연대회수상작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5:00 UHD 제주산책 16:10 UHD 특선 17:00 KCTV 뉴스 18:30 세계의 99방상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오늘의 운세 20일

김중상 지단(甲子)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택교수 (010-5233-6136)

36년 작은 이익을 보려다가 큰 일에 손해를 보니 신중함이 없다. 48년 변화를 주고 싶고 구매충동이 강한 날. 60년 참고 인내하면 구하고자 하는 것이 풀려나간다. 72년 경쟁자 또는 상대자로 인해 피곤. 전문직은 인정 받고 일이 많아진다. 84년 경솔하게 행동하면 상사나 동료의 미움을 사게 되니 행동 조심.

37년 몸이 분주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이익도 있다. 49년 금전거래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라. 61년 문서, 계약 등 일이 있다. 집 매매, 장인이 유리하다. 73년 먼저 이익을 생각하기 이전에 정직함을 우선 시 하는가 판단. 85년 현실이 어려워도 실력만 이 나를 인정하니 자격증, 면허가 절실하다.

38년 위장에 무리가 오니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섭취해야. 50년 부업 또는 취업 등 무슨 일이나 하려는 욕망이 강하다. 62년 남의 말에 동요되면 실수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74년 직장, 이성관계는 순조롭고 약속이 이뤄지면 만나라. 86년 한가지 일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 것.

39년 혈압이나 기온에 민감하니 외출 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51년 이사 이동이 생기고 새로운 장출을 원하게 된다. 63년 단체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된다. 운전은 금물. 75년 부부간 인정이나 불화가 오니 먼저 큰소리를 내지 말 것. 87년 과거의 추억이 나를 다시 긴장하게 한다.

40년 사람을 포용하는 너그러움이 존경에 대상이 되니 여유있는 웃음이 좋은 날. 52년 자녀와 상의하면 일이 순조롭다. 64년 배려하는 마음이 크고 봉사심이 강하다. 76년 부지런함이 수위로 다가오니 대인관계 폭을 넓혀라. 88년 활동이 강하고 모임이 생긴다. 붉은 계통 행운이며 너무 늦지 말 것.

41년 약속을 잘 이행하고 신용을 중시하라. 53년 문서로 인한 기쁨이 있으나 가정에서는 불화, 근심수가 있다. 65년 재주가 많아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적을 수 있으니 대인관계가 관건. 77년 규칙적인 생활이 나의 정신, 육체 건강을 좋게 한다. 89년 의류, 패션업은 수익 호전. 직장인은 인정 절전을 받는다.

42년 상대방을 너무 이해하려다가 역효과가 생기니 동정하지 말자. 54년 친구 또는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진다. 66년 마음 먹은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게 좋다. 78년 자존심이나 자만은 집에 두고 일터로 향하라. 90년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

43년 재물이 들어와도 지출될 곳이 많고 구입할 것도 많다. 55년 당장의 결과보다 전문 인적자원 활용이 중요하니 평생교육원을 통한 정보 활용. 67년 웃음이 오늘 행운이니 만민을 향해 웃어라. 79년 정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라. 평생교육원장도 참고할 것. 91년 기쁨이나 대화로 나를 사귀어 필요하다.

44년 주유업, 약세사리 완구업은 몸이 분주하고 늦게까지 일이 있다. 56년 경제적으로 지출이 생기고 모임도 많아진다. 68년 이웃과 봉사할 일이 생기거나 기쁨을 주려 고 한다. 80년 스스로 일을 맡을 수 있는 날이니 신중쓰는 것은 다소 삼갈 것. 92년 회식이나 모임에 뜻밖의 즐거움이 있다.

45년 대화 시 차한잔의 여유도 나를 존경하게 한다. 57년 아랫사람의 도움이 있거나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긴다. 69년 유행을 주도하는 업이나 실내장식업은 고객이 늘어난다. 81년 이성교제 또는 주위에서 소개가 생기니 내 자신은 준비가 부족하다. 93년 하는 일에 변동이 오거나 정리하려고 한다.

46년 소송 관제구설이 따르니 약속이행 철저. 58년 자영업자 문서이동 이사 등의 일이 생긴다. 70년 목마름에 갈증하던 차에 친구 또는 주변의 협조로 기쁨이 찾아온다. 82년 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만 집중하라. 결과가 좋아진다. 94년 사비 구설이 오니 앞장서는 일은 신중하게.

47년 변화가 필요하면서도 막상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 한다. 59년 가정에서는 사소한 문제로 불화하나 바깥에서는 활동 영역이 넓다. 71년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아야 한다. 83년 직장인은 원사람과 논쟁하지 말 것. 자영업은 이윤 증대, 기쁨이 생긴다. 95년 몸도 마음도 허전하다. 친구가 필요하다.